

차세대 면역강화제 개발로 닭 생산성 향상



▲ 차세대 베타글루칸 '알레타'를 개발한 조프 호스트 박사

닭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양계인들의 바람일 것이다.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닭을 보호하고, 질병을 사전 차단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면역증강제가 개발되어 전 세계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. 그 물질은 해조류에서 추출하여 특허를 획득한 차세대 베타글루칸인 알레타(Aleta)이다. 알레타는 케민코리아(주)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국내에 출시되었고 메이저급 사료회사들이 사용할 정도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. 본고는 이 제제를 직접 개발한 조프 호스트(Geoff Horst) 박사(케민 미시건 R&D팀)를 만나 방문 목적과 면역증강제의 특징 및 개발에 대한 뒷얘기를 들어보았다.

Q 방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

A 한국에는 지난해 11월 제품을 출시할 때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한국은 올 때마다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방문한 것은 '알레타' 출시 이후 사용현황 및 효과에 대해

확인하고, 동남아 지역을 돌면서 이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함께하고자 방문했습니다. 제가 개발한 ‘알레타’가 한국에 출시한 지 1년도 안 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.

Q 케민은 어떤 회사인가요?

A 케민(KEMIN)은 1961년 R.W와 Mary Nelson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동물용 및 인체용 영양 및 첨가제를 생산, 판매하는 다국적 회사입니다. 케민은 미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아이오와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8개 나라(미국 등)에 공장을 설립, 운영 중에 있고, 한국을 포함해 90여개 나라에 지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케민은 전 세계에서 200개 이상의 특허

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한국에는 케민코리아(주)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
Q 차세대 면역증가제인 ‘알레타’를 직접 개발하셨는데 개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.

A 저는 처음 알겔사이언티픽 회사에 근무하다가 케민사와 합병하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 분야에 특허를 여러 개 갖고 있어 더욱 연구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제품은 처음 2010년에 개발했는데 동물면역력 증강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던 중 우연히 해조류에서 베타글루칸을 특정 식물에서 추출하게 되었으며, 이를

이용해 차세대 면역강화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케민사의 오래된 노하우와 제 기술력이 결합하여 2015년에 획기적인 차세대 제품을 만들어 특허를 받게 되었죠. 이를 현장에 적용시킨 결과 면역증강뿐만 아니라 항병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



▲ 케민사 직원들과 함께(좌부터 윌리엄 친 케민아시아 매니저, 조프 박사, 이충한 박사(케민코리아), 안의철 사장(케민코리아))

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본 제품은 기존 1세대 효모추출 베타글루칸과 비교할 때 순도와 결합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
Q 일반 베타글루칸 제품도 많이 있는데 ‘알레타’가 차세대 신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 시중에는 베타글루칸 추출물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베타글루칸의 입자도가 크면 장내로 흡수된 이후 면역세포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므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. 해조류 추출물인 차세대 베타글루칸 면역강화제인 ‘알레타’는 효모의 세포벽이 아닌 해조류에서 추출하는데 입자도가 1~3마이크론으로 일반 글루칸 입자 10마이크론에 비해 현저히 작고 순도 면과 구성내용 면에서도 1세대 베타글루칸보다 탁월합니다.

미국에서는 출시 후 타이슨 푸드사 등 대단위 회사들이 사용하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. 케민사에서 출시한 제품들은 수십 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정도로 개발 과정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번 제품도 장기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. 현장에서 AI나 각종 질병에 대한 백신을 할 경우 ‘알

레타’가 사전 예방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면역력 획득에도 더 탁월한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.

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

A 우선은 이 제품을 전 세계에 알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. 한국 일정이 끝나면 대만의 수산물 시장을 둘러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.

‘알레타’가 케민코리아의 노력으로 한국 시장에도 많은 보급이 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. 지난해와 금년 한국에서 시험 사양한 육계농장 시험 결과 출하 체중은 물론 요구율과 육성율 등에서 대조구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생산지수는 오히려 사육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더 큰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같은 효과는 다른 국가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케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 제품을 한국에 선보이게 한 케민코리아 안의철 사장과 이충한 박사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취재 | 김동진 편집장 djkim300@hanmail.net